

‘끝나지 않은 낭만’... 산골영화제 시즌2, 무주에서

코로나19 · 수해로 지친 당신, 영화관으로 오라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6월 7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경쟁부문 시상식과 함께 '온라인 시즌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무주와 서울에서 '오프라인 시즌 2'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지역 감염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오는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시즌 2 - 무주 상영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6월 4일부터 총 4일간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상영과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들을 네이버TV와 YouTube 공식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 총 8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시즌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와 공연,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없었던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영화제가 관객들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로 지친 무주군민을 위한 상영



무주 산골영화관 내부 모습. (사진=무주군청 제공)

지난달 '재개관' 산골영화관에서
내일부터 31일까지 77편 상영
마스크 등 구성 방역 키트 제공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
온라인 등에서 예매 가능
관람료는 각 작품당 1000원

영화관에서 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기생충 흑백판', '그녀들을 도와줘'를 비롯 '그래비티', '남매의 여름밤', '고흐, 영원의 문에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총 77편의 국내외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주산골영화관 상영관 좌석의 50%만 운영(최대 21석)하고 매회 상영 종료 후 분무 소독 등을 통해 철저히 방역하며 입장 관객 전원을 대상으로 QR코드 인증과 수거명부 작성을 병

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중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키트를 영화제 참여 관객 모두에게 특별 제공하며, 모든 관객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 - 무주 상영회의 전체 상영 시간표 및 안내사항들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5일 온라인(네이버영화, 예스24) 또는 무주산골영화관 매표소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각 작품 당 1,000원이다. 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 - 무주 상영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미처 볼 수 없었던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엄선된 상영작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이자, 무주산골영화제가 새롭게 운영을 맡게 된 무주산골영화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서울 작가 교류전 '점展 THE'

전주미술관은 전주·서울 지역 작가 교류전인 '점展 THE'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주와 서울 간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업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예술 동향에 머무르지 않는 전시와 공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단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와 공간, 관람객의 상호관계를 공고히하고 예술가로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작점에 있는 청년 작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갈 동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시는 오는 27일~11월 29일 전주미술관에서 열린다. /뉴스

NH 농업축! 전주매일 창간

함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온 대한민국
 그 놀라운 힘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함께하는 의료진 공무원
 국민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농협도 함께하겠습니다

- | | | |
|------------------|------------------|---------------------|
| 1. 김제시지부 지부장 송 혁 | 6. 금만농협 조합장 최승운 | 11. 광활농협 조합장 신광식 |
| 2. 김제농협 조합장 이정용 | 7. 공덕농협 조합장 문홍길 | 12. 김제원예농협 조합장 김광식 |
| 3. 백산농협 조합장 강원구 | 8. 진봉농협 조합장 노종열 | 13. 동진강남농협 조합장 김투호 |
| 4. 용지농협 조합장 박광양 | 9. 동김제농협 조합장 최진오 | 14. 전주김제원추협 조합장 김창수 |
| 5. 백구농협 조합장 이영철 | 10. 금산농협 조합장 이민섭 | |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단경왕후를 기린다' 프로그램.

순창군,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순창군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총 2건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순창군은 내년에 순창향교와 순창객사, 삼인대, 신경준의 고지도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순창향교(도 문화재자료 제88호)에서 전통놀이, 전통혼

례, 유교 인문학 강의 등을 진행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열린 전통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순창향교 활용사업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순창객사, 순창삼인대에서 왕실문화 체험, 삼인대 정신을 재현한 상소문 작성하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 순창향교 문화재, 생생문화재 사업이 진행중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올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과(☎ 650-162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기문국 토기 재현 작품 전시

가야 토기展, 8일까지 남원시청 로비서

남원시청 로비에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가야(기문국) 토기를 재현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작품전은 2020 전북 평생교육 진흥 공모사업인 '남원가야(기문국) 고고(GO)' 수강생들이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야토기 재현 작품 21점과 강사 제작 작품 3점으로 꾸러진 전시회로, 10월 중 개최하려다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따라 취소된 남원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성과공유 자리이기도 하다.

남원시는 지난 5월 전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역특화분야 '남원가야(기문국) 고고(GO)' 사업이 선정된 후 남원 유곡리·두리리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살펴보고 토기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남원가야의 발자취를 엿보고 남원가야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목적 아래 24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총 10차례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시민들에게 가야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정남원 시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힘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